

마스턴프리미어리츠, PwC와 크리스탈파크 오피스 임대차 계약 12년 연장

PwC 계약 연장 및 임대면적 확대... 임차인의 높은 선호도 재확인

문의처	[마스턴투자운용 브랜드전략팀]
	김민석 팀장 (02-2673-3693/ 010-9984-1510/mskim@mastern.co.kr)
	백동윤 과장 (02-2176-3993/ 010-8126-2165/dybaek@mastern.co.kr)
배포일	2024년 1월 5일 (금)

- 크리스탈파크 오피스, '플라이트 투 퀄리티(Flight to Quality)' 부합 자산 재입증
- PwC 와 계약 연장, 추후 리파이낸싱과 매각 전략에 긍정적 효과 기대

Mastern

PREMIER

마스턴프리미어리츠는 프랑스 파리 크리스탈파크 오피스의 주요 임차인인 프
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와 임대차 연장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로, 크리스탈파크 오피스의 6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주요 임차인이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잔여 임대차 계약 기간(2023년 말 기준)은 약 4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났고, 임대면적 또한 현 60% 수준에서 약 65%까지 확대된다.

이번 계약은 그간 지속적으로 증평 의사를 표시했던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

스와 계약 연장과 임대면적 확대에 대해 합의에 이르러 지난 2일(현지 시각 기준) 체결되었다. 이로써 크리스탈파크 오피스는 '플라이트 투 퀄리티(Flight to Quality)'에 부합하는 자산임을 재입증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스턴투자운용 조용민 해외부문 대표는 "글로벌 오피스 임대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파리 중심업무지구(CBD) 근방의 오피스 공실률은 최저 상태를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 자산의 퀄리티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에 공실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번 계약으로 크리스탈파크 오피스가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은 자산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마스턴투자운용은 크리스탈파크 오피스의 매각 적기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계약 연장이 향후 리파이낸싱과 매각 전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사진 설명 1] 마스턴프리미어리츠 CI(사진 제공=마스턴투자운용 브랜드전략팀)